

‘절대 甲’ 광주시 사업 배분 제멋대로

문화수도 발목잡는 광주시 문화행정 2 주먹구구식 운영

특정단체 편중...문화재단 전문성도 부족 지원사업 표류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문화컨트를 타워의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주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율성을 잃은지 오래고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상태에서 부당한 직원 채용, 조직 위계질서 문란, 직원의 기자재 횡령,

사무처장 사퇴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의 도를 넘는 과도한 간섭은 지난 2011년 재단 출범 당시부터 우려됐다. 최초 출연금 80억원 중 문에 진흥기금 50억원을 제외한 30억원과 운영비 15억원을 모두 광주시가 담당해 재정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었고,

때문에 광주시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 밖에 없었다. 광주시가 만든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작용했다.

실제 광주시가 재단이 진행하던 사업 운영권을 특정 단체에 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던 아시아 문화예술인 레지던스사업(3600만원)과

국제문화도시 교류 네트워크사업(3600만원)을 올해 민간단체인 D문화재단에 맡겼다.

국제문화도시 교류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상 일관되고 균형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재단의 의견은 목살됐다.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공모심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과 D문화재단 두 곳이 신청했으나, 심사 직전 시 관계자로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 결국 광주문화재단은 심사대상에서

배제됐고 D문화재단이 선정됐다.

D문화재단은 현재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가 진행하는 5~6개의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 특정단체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화교육센터 운영 특정단체 위탁 추진 의혹’도 이 단체와 연관이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인력 문제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상당수다. <2면에 계속>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우치동물원의 월동 준비

입동(立冬)을 이틀 앞둔 5일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의 초식동물사육사 직원들이 그늘초가 지붕에 빗줄을 엮는 이영작업을 하고 있다. 그늘초가는 겨울에 눈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폭우와 강렬한 햇빛을 차단해 동물의 휴식공간으로 쓰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문화교육센터 위탁 백지화

광주시가 ‘문화교육센터 운영 특정단체 위탁 추진 의혹’<광주일보 10월 31일자 1면>과 관련, 문화교육센터 위탁을 백지화했다.

광주시는 5일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교육센터를 외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실무서에서 검토했으나 해당 센터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

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문화재단을 문화교육센터 운영기관으로 문화부에 재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위탁기간의 해제를 문화부에 건의해 광주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를 통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영역인 광역센터(문화교육센터) 관리 운영에 소극적

이므로 센터 재지정 시(2013년 12월 기한 만료) ‘00문화재단’ 추천 검토”라고 명시해 문화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문화교육센터의 공식명칭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광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정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헌재 제출

헌정 사상 처음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3·4면>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이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

을 통해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국가기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정권의 위기관련용”이라며 “무차별적인 종북몰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의한 공안탄압, 그리고 정당해산까지 정권의 비상식적인 자충수는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알림

2013 늦가을 남도 역사·문화 체험

가사문화권 그린 자전거 한마당

11월 9일 광주 호수생태공원·담양 가사문화권 일대

잊혀져가는 농촌의 정겨움을 느끼고, 가족애를 나누며 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2013 가사문화권 Green 자전거 한마당”이 11월 9일 광주호수생태공원과 담양군 남면 가사문화권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한마당은 크게 ▲자전거사랑 행진(5km) ▲건강걷기(2.5km) ▲자전거사랑 백일장 대회(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됩니다.(참가비 무료)

자전거사랑 행진 행사는 광주 호수생태공원에서 시작해 충효교~가사문화관 삼거리~지곡리 삼거리~서산교~금산교~송강로~충효제~충효왕버들 구간에서 열립니다.

건강걷기 행사 역시 광주 호수생태공원을 출발해 환벽당 삼거리~환벽당길~평도 들녘~충효분교~충효샘길~충효왕버들을 거쳐 출발지로 되돌아옵니다.

자전거사랑 백일장 행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늦가을 정취 속에서 가족과 함께 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3년 11월 9일(토) 오후1시
■ 장 소: 광주호수생태공원, 담양가사문화권
■ 참가비: 전 종목 무료
■ 주 최: 광주일보사
■ 주 관: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 후 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문 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062-220-0541

광주일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창사 61주년 since 1952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The New A-Class

1등급*
*효율적인 연비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점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00 CDI 1,796cc, 1475kg,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 복합연비 18.0km/ℓ(도시연비 16.0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배출량 107g/km * A 200 CDI Style CDI 1,796cc, 1475kg, 7단듀얼클러치 변속기, 복합연비 18.0km/ℓ(도시연비 16.0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배출량 107g/km * A CDI Night 1,796cc, 1475kg, 7단듀얼클러치 변속기, 복합연비 18.0km/ℓ(도시연비 16.0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배출량 107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